

정정훈-혁명과 꼬문의 유토피아를 읽다

제 3강 헤겔 군주권의 자의성 비판

◆ 1교시 국가의 형성에 대한 헤겔의 전도

▲ 헤겔의 논리 - 절대정신 하에 가족, 시민사회, 국가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맑스는 글이 되게 어려운데 헤겔이 어려우니까. 간단한 얘기에요 사실은. **헤겔이 실체와 관념을 뒤집었다고 보는 거예요.** 주어와 술어의 전도. revers(실체와 관념의 전도). 관계를 전도 시켰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정신이 자기전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국가란 관념이 먼저 존재하고 그 관념이 현실 속으로 실현되면 그게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현의 과정들 중에 그냥 거쳐 가는 애들로 뭐가 등장하냐. 가족과 시민사회가 등장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발생 순서를 보면 전개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 등장하고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국가가 등장하죠. 근데 이 순서를 볼 때 애네들은 뭘까요? 국가 외부적이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시민사회 없어도 가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개라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없어도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가족과 시민 사회는 불안정한 보편성 아직 규정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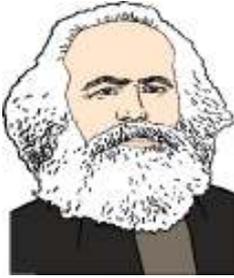
그럼 애네들이 규정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 안에 있어야 되죠. 국가로서 자기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애네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상급 개념들이 하위개념들로 내려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시민사회가 있을 때 가족이 드디어 규정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외면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생겨야지만 시민사회도 가족도 하나의 규정성을 보편자인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헤겔의 얘기에요.

▲ 맑스의 비판 ① 구체적 삶이 국가를 만든다

근데 맑스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이게 하나의 정도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국가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엔 뭐가 빠져 있죠? 근데 헤겔은 역사의 문제처럼 얘기해왔어요. 근데 어떤 역사예요? 절대정신의 역사 개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개념들의 논리 과정을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투쟁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의 마스크일 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절대정신이라는 애가 현실적 인간들을 인형처럼 세워놓고 조정한거예요. 그걸 헤겔은 현실들은 뭐냐? 절대정신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본질과 형상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

보셨죠? 현상태다 이런 얘기들. 그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들의 생활은 절대정신의 본질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역사는 정신현상학이에요.



그런데 맑스가 다 뒤집어 놓은 거다. 실제로 국가가 발생하는 건 뭐다? 가능케 했던 것들을 쓰는 것처럼 이 시민사회나 가족들. 결혼이 일어나고 아이가 출산하고 이런. 가족이란 자연적 기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거죠. 맑스는 최소한. 이 때 자연성이란 출생과 관련돼서 그래요. 가족제도의 자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종이 재생산되기 위해선 생식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인위적 기초. 이 두 가지의 기반에서 국가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개념의 자기전개 과정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 살아 숨 쉬는 현실적 인간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국가가 형성되어 갔다는 거죠. 맑스의 비판은 헤겔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 너에게 역사는 존재하지 않고 개념뿐이다. 근데 국가를 위해선 현실적 인간들의 역사를 봐라.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전도고 하나의 가상. 혹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걸까요? 맑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절대정신 아니면 이념, 국가의식 혹은 국가 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물질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현실적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본질이 어떤 추상적 이념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맑스가 보기에. 그래서 헤겔의 국가론은 환상의 국가론인 거예요.

그래서 맑스가 이런 말을 하죠. 5페이지에 보시면 그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인용문이죠.

- 가족과 시민사회는 현실적인 국가부분들, 의지의 현실적인 정신적 실존체들이고, 그것들은 국가의 현존 방식이다. 가족과 시민사회는 자기 자신을 국가로 만든다. 가족과 시민사회는 (국가의) 원동력이다. 이에 반해 헤겔에 의하면 그것들은 현실적 이념에 의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족과 시민사회야말로 국가를 만들어내는 현실적 힘인데 헤겔은 절대정신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로 봤다는 거죠.

▲ 맑스의 비판 ② 헤겔의 전도

그래서 맑스가 비판하는 건 이 헤겔에 의한 국가의 환상성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맑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밑에 있는 인용문 좀 볼게요.

- 정치적 국가는 가족의 자연적 기초와 시민사회의 인위적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국가에 있어 하나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즉 가족과 시민사회라는 자연적인 현실의 조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조건은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성이죠.** 그런데 헤겔에게는 조건 지어진 것으로 즉, 앞에 조건은 뭐죠? 이 현실성이 조건 짓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걸로 나타난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절대정신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규정하는 것은 규정 된 것으로. 규정 하는 것은 현실성이죠. 가족과 시민사회는. 애가 규정의 주체인데 헤겔은 절대정신에 의해서 규정 된 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출하는 것은 그 산물의 산물로서 정립된다고 말을 하죠. 산출하는 게 뭐죠? 역시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를 산출하는 거죠. 근데 그 산물의 산물로 정립된다고 그랬죠. 산출하는 것. 산출하는 게 말이 어렵죠. 산출자. 산출하는 것. 애가 뭐라고요? 가족이고, 시민사회죠. 애가 뭘 산출해요? 국가를 산출하죠.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헤겔에 의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애가 애를 산출했는데, 헤겔이 보기에는 애가 다시 애를 산출하는 걸로. 산물의 산물로 된다. 산출하는 게. 이런 전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 현실적 이념이 자신을 가족과 시민사회의 유한성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가족과 시민사회를 지양함으로써 국가의 무한성을 향유하고 산출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국가 정신이 유한성이다. 유한성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보편적 유한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과 시민사회는 국가 안에 있는데 국가 안에서 국가의 유한성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과 시민사회를 헤겔이 끌어들이 이유는 유한성을 지양하는 것으로서 그 완전성 보편성에 이르는 즉, 무한성에 이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수단적으로 끌어들이 것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겔의 국가론은 뭐냐? 맑스에게는 일종의 환상의 서술인거죠. 하나도 훌륭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동어반복한거라고. 주어와 서술어 바꿔 놓은 거다. 분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건 서술한 거다. 한마디로 소설 썼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국문학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례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회과학을 하거나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냈는데 소설이잖아 하면 최악의 혹평입니다. 그러나 국문학 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냈는데 그러면 호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러더라고요. 사회과학자들이 소설을 쓰면 잡문 썼어요. 이래요. 자기가 주전공하는 걸 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맑스가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지점은 어디라고 본 거예요? 절대 정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아무리 사변을 해본들 국가의 본질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 헤겔이 전도시켰던 원래의 자리. 출발점. 가족과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실제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맑스의 생각인 거예요.

가족의 자연적 기초와 시민사회의 인위적 기초. 여기서 맑스는 헤겔의 상상을 산산조각 낸

필요가 있었던 거죠. 환상을 깨야 진정한 국가의 기초가 발견 될 테니까. 그런 작업이 맑스가 생각했던 비판입니다. 맑스에게서 비판은 굉장히 고상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건설적 비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이라는 건 건설적인 거지 왜 폭력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맑스의 비판은 피 튀기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서 인용해봤습니다.

- 비판은 해부용 칼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이다. 비판의 대상은 비판의 적,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적이다. 비판의 본질적 파토스(감성)는 분노이며 비판의 본질적 작업은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겁니다. 텍스트 읽어 보시면 좀 심하다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 생활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 법철학 비판에서는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구체적 현실적 분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51년 서문에서 자기가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물질적 사회관계를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정치경제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헤겔의 법철학비판에서는. 오히려 국가 토대가 사실은 물질적인 세계다. 여기까지만 한 거죠. 그 작업은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부터입니다.

◆ 2교시 헤겔의 군주권은 신비적이다

▲ 헤겔의 군주권 비판

그 다음에 맑스의 비판의 핵심은 군주권 비판에 있어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민주이론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이념, 자기실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의 인륜성. 이런 개념은 가장 뚜렷하게 즉, **관념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헤겔에 있어서 군주에 대한 이해**예요.

국가가 이념이 실현된 거죠. 근데 국가가 국가에게 하는 것이 헤겔이 보기에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헤겔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글썽요. 영토. 국민 주권. 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식민지 경험한 사람이라 더욱 그럴텐데) 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주권에 대한 관심이 없죠.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헤겔 논리에서 정말 국가에게 필요한 건 **국가의 본질 이념성**을 잘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 3 요소 중에, 너무나 쉽죠? 제가 따옴표 쳐 놓은 거죠. **주권**이죠.

국민의 영토 같은 경우는 물질성이고 그 자체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가 본질적으로 관념이 현실화 된 거라면 이 관념성이 가장 국가의 본질로서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권이에요. 주권이야말로 국가를 국가이길 규정하는 요소인거죠. 근데 헤겔은 이 주권이 결국은 하나의 인격. 일개인에 귀속된다고 파악을 해요. 바로 군주라는 개인이죠.

- “주권이란 일단은 다만 이 관념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사상일 뿐이지만 (주권은 관념성이죠. 주권을 누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념적인 거 맞아요. 일반적 사상일 뿐이지만) 실은 자기확신적 주관성으로서, 그리고 또 의지의 추상적인, 그런 한에서 다른 어떤 근거도 지나지 않는 자기규정으로 존재하는 바, 바로 이 속에 궁극적 결정인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지니는 개체적 요소 그 자체로서 국가는 오직 이 경우에만 일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관성이란 참다운 의미에서는 오직 **주관, 주체로서만, 그리고 인격은 오직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바,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단계에까지 신장된 국가체제에서도 개념의 세 계기는 모두가 저마다 스스로의 독자적인 실제적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체에 대한 절대적 결정인을 이루는 이 계기는 결코 개체성 일반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 즉 군주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게 써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권을 잘 보여주는 게 현실 안의 군주다. 이런 얘기겠죠? 그 밑에 부분을 같이 한 번 보죠. 헤겔은 주권이란 관념성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가 이념이 먼저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의 본질을 규정해주는 주권은 어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념성은 국가의 배타적 최고 권력이죠. 국권이 뭔지 아시죠?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배타성이예요. 현대철학 다 이 주권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념성은 국가의 배타적 최후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 모든 존재자들을 규정하지만. 그렇겠죠.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모든 의무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해야 한다는 의무들을 뭐가 확증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생은 뭘 따라야 하죠? 학교에서?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 하죠. 그러나 교칙은 뭘 위반할 수 없죠? 예를 들자면 각 개별 학교의 교칙은 교육부에 그 어떤 위반할 수 없죠. 교육법들은. 올라와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헌법으로 가죠. 헌법은 주권이 만들어내죠. 주권은 그렇게 되면 한 국가의 모든 걸 소급해가면 주권에서 모든 걸 받아요. 그렇죠?

근데 애(주권)는 모든 걸 규정하는데 애를 규정하는 건 뭘까요? 없죠. 그래서 헤겔이 애는 자기 확신적이라고 한거예요. 주권이 행하는 건 다른 근거가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관성, 주체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 확인 쉽게 말해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뭐라고 하나면 그 안에서 그 어떤 근거도 지지 않는 자기 규정성이라고 말을 해요. 애를 규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규정하는 게 주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절대 정신도 마찬가지죠. 절대 정신 자기는 뭐가 규정을 해? 자기가 하는 거죠. 절대정신은 사실 신이예요. 신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죠. 존스러우니까.**

이 자기확신적인 그리고 또 이 주권이 권력인 이상 당연히 의지를 가지겠죠. 근데 이 의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권이 가진 의지. **주권이 가진 의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근거 없죠. 개가 최고의 의지인데.** 다른 의지에 의해서 근거 지워지지 않아요. 자기 규정성이죠. 자기 **확신적**으로서의 **관념**으로서의 **주권**은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 육화 Incarnation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권이 주관성으로 규정되었었죠. 어떤 주체성으로. 근데 이 주체성은 추상적 주체성이죠.

이런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의지하는 자는 모르는 거야. 구체적으로. 의지한다는 술어만 있어. 구체적으로 주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헤겔에 의하면 그 주어를 이념이라고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걸 맑스가 보기에 동어 반복이에요. 주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지한다인데 의지한다는 주어가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라고 맑스가 비판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돼요. 그죠? 즉, 주관. 구체적인 주관성 구체적인 주체로 육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체는 누구죠?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개인이죠. 생물학적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주관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개인은 근데 누구일까요?

그 중에서도 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개인이 있다는 겁니다. 개가 군주다.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주권의 국가의 실체성.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 또는 관념 정신이 육화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듯이 국가성, 국가정신은 군주라는 육신을 잇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맑스가 뭐라고 했나면 어렵게 쓰고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왕권신수설이었다. 근데 헤겔에게는 세련된 판본일 뿐이다. 왕권을 신이 줬다고 말하면 될 것을 어렵게 한 거죠. 헤겔 전공한 사람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맑스가 그랬습니다.

▲ 헤겔의 전도된 주관성 - 신비적 실체 구축

물론 여기에도 전도가 있죠. 주관성이란 언제나 특정한 주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주관성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주관성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죠? 구체적인 개인들에 존재하는 주관을 보면서 뭉뚱그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성은 주어 술어관계에서 술어의 위치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헤겔은 이 술어를 주어로 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부여된 게 주관이다.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게 육체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체다. 술어와 주어의 관계가 전도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관성이 먼저 되고, 주체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맑스가 이렇게 말해요. 현실적 주체가 신비적 주관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에 있는 애들 왜 생겼냐 할 때 아주 속류적으로 말하자면 애네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물질적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헤겔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관성이라는

관념이 현실과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화입니까? 맑스가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신비적 실체가 현실적 주체가 된다**. 진짜 주체는 누구예요. 이 세계를 창조해내고 삶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헤겔이 보기에는 인간들이 **구체적인 현실 존재들이 아니라 주관성이 라는 이념**. 절대정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신비한 것들이 헤겔은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죠. 절대정신이 뭔지. 개념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맑스가 애길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애가 어떻게 된다고요? 추상적인 이념이 이 정신이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는 주체의 자리에 들어선다. 근데 이건 신비하다.

- 따라서 신비적 실체가 현실적 주체로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주체가 어떤 다른 것으로서, 즉 신비적 실체의 한 계기로서 나타난다.

이 실제적 주체는 뭐죠? 현실적인 물질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애가 뭐라고요? 신비적 실체의 한 계기이다. 신비적 주체가 구현되는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 헤겔은 실제적인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대신에 보편적 규정의 술어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하튼 이 규정의 담당자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신비적 이념이 이러한 담당자가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겔에게서 국가의 관념은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게 되죠. 결국 국가 관념이 계속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게 되면 한 개인에게서 그 완성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때 이런 관념성의 종류는 어떤 것이 될까요?

다시 말해,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으로서의 주권은 군주에게 귀속된다고 할 때 이 주권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국 주권이라는 건 헤겔이 그렇게 얘기해요. 최종 계기에서의 결정권에 다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종적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자가 주권자죠.

가부장제에서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칼 슈미트라는 나치 정치철학자가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지만 주권을 이렇게 결정해요.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결정. 법적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

헤겔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주권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상태가 결정권자로서의 주권자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화사태가 아니라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된다. 아니다 강공을 할 때다. 아니다 전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전면전을 해야 한다. 는 식의 논의가 있는데, 그만! 이렇게 간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애. 애가 주권자라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긴급조치 같은 게 법을 다 중지 시킨 거잖아요. 나치정권도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헌법을 다 중지 시킨 것으로 작동했다고 해요. 그때 주권자가 잘 드러나는 경우가 이런 비상사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건 대부분 군주의 결정,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 주권의 자의성 - 배제의 논리

이 결정권이 더욱이나 주권이 자기 확신적이라고 그랬죠. 근거 없다고 그랬죠. 근거 없는 건 자의적인 거잖아요. 재밌어요. 근거 없음. 근거 없이 규정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규정되지 않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규정할 수 없음은 어느 수준에서 논술했죠? 헤겔에게서는? 추상적 관념성에서 논의됐어요.

근데 이건 언제나 구체적인 현실로 주관성 이상 주체적인 개인에게. 그렇다면 이 개인의 결정도 당연히 의지의 근거 없음. 규정의 자기 규정성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다?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무엇도 내 결정을 규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최종결정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권자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겠어요? 여러 의견을 들어 보겠죠. 근데 여러 의견 중에서 A가 아닌 B라는 것은 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언제나 최종 마지막엔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군주도 당연히 자의적이죠.

- 헤겔이 전개한 바와 같은 군주권의 이념은 바로 자의적인 것의 이념, 의지의 결정의 이념에 다름 아니다.

헤겔에게 있어서 **군주란 국가의 인격성,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격성 육신을 갖춘 국가 의식인거죠. 그리고 헤겔은 이러한 인격화된 주권은 단지 내가 의지한다. 의지자는, 내가 의지한다라는 자의적 의지의 특징을 짓습니다. 군주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 결심하고 그렇게 모든 행동과 현실성을 개시함으로써 모든 동요와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최종 결정자라는 거죠.

- 이러한 '국가이성'과 '국가의식'은 모든 다른 인격체들을 배제하는 '유일한' 경험적 인격체이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국가이념이 한 명의 개인에게 구현되면 당연히 다른 개인들은 이런 국가의식 국가 이념으로부터 배제 당하게 되죠. 한명은 특권적 위치에 서게 되죠.

- 그러나 이 인격화된 이성은 '내가 의지 한다'라는 추상화 이외의 어떤 다른 내용을 갖지 않는다. 짐이 곧 국가로다.

루이 14세가 했던 이 말이 딱 이 얘기죠. ‘짐이 국가로다’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곧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맑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의 탑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국가를 국가로서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념성을 구현하고 있는 건 나밖에 없고, 너희는 구현하지 못하다. **백성들을 인민들을 이 국가성을 실현하고 있는 존재의 자료로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내용은 현실성의 내용은 오직 하나. ‘나는 의지한다.’ I Will이라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종 심급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한거죠. 청년 맑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맑스가 여기서는 군주주권을 비판하고 인민주권을 얘기하구요. 이건 다음주에 하겠습니다.